



교 시
진 평 자 리 화 유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발행소: 전주시 효자동 3가 1200번지
전주대신문사
전화: 편집국 220-2442
운영실 220-2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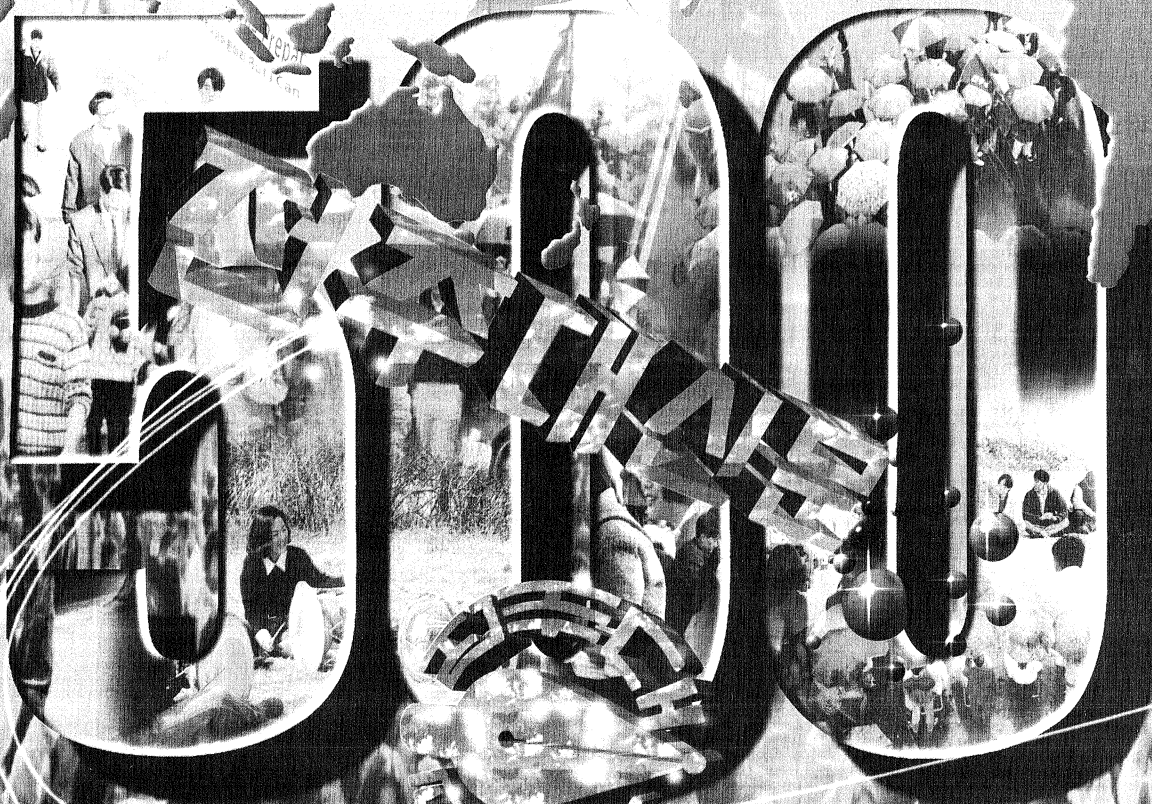
발행인겸 편집인 이종익 / 주간 원한식 / 편집국장 최경주

(1986년 8월 27일
문화부 등록 다-410)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96년 11월 4일 (월요일) [주간] (제 500 호) ①

오백걸음에 31년 세월
열린세계로 "첫 걸음"



화보제작: 윤성식(산림미술·92년 졸업)

지령 500호 특집

1965년 5월 15일 창간

◇전북지역 시민운동 현황 및 발전방향

환경·여성·언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전개

의식개혁 및 주체적 시민으로의 성장 촉진



(시민운동은 운동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인식과 행동에 입각한 사회 변화발전을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1. 전북지역 시민운동단체 현황 및 발전과정

전북지역의 시민운동단체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운동주체, 성격, 내용의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전북지역은 시기적으로 80년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총산, 전직 MR, 향토민중회 연구회, 여성의 전화, YWCA)와 90년대에 건설된 단체(환경운동연합, 정선단, 전주시민회동)이 단체의 고유한 영역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전북지역 시민운동의 성과와 전망

전북지역의 시민운동은 기존활동단체의 성격 및 활동영역의 변화, 새로운 시민운동조직 건설,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의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95년을 전후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불안정한 시민운동의 주체로써의 시민운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 담당해야 할 것들

시민운동은 건강한 의사와 실천을 결미한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조건이다. 현재 운동의 조건이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닌 대중적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나, 그동안 해오던 엘리트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도외시해서는

불분적이나마 시민들의 지지기반을 형성한 것이 성과이다.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완결적인 재정 확보,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 시민운동의 제도, 역할행동을 위한 사업 연대활동, 엘리트 중심의 운동 등 이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각 시민운동단체들이 겪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재정지원을 감소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원칙적으로 감소한다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안된다. 따라서 준비위원회로서 장래에 사회에 진출할 대학생들에게 주는 기회는 자못 크다. 지역의 시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이 담당해야 할 것을 몇가지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후 수월한 시민으로 편입하는가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담당하게 시민사회의 주인으로 설 것인가는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과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주요 훈련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장했을 때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와 행동을 책임지는 참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지난 몇년간 우리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 과정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인 민주주의제도의 정착으로 일정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성을 보이는 방향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진전을 계기로 시민들이 사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확대하고 이를 계기에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집중으로 선도를 담당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집단성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성이 아닌 참여 의지와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으로 시민의 인성교육과 신념을 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도래와 우리대학의 과제

대학, 시민사회 교육장

국가권력·시장논리 앞에 벗어날 힘 가지지 못하면 권력과

I. 시민사회의 도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제도의 신화와 분단체제 속에서 국가권력의 과잉 지배와 권력의 공룡화, 공룡화 시민사회의 성립이 억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집합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에 철저하게 속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로 하여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시장으로 분류되던 사회구성원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분화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대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반론에서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학사회의 위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외에 대한 전망을 논해보고자 한다.

II. 지방화의 국제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의 성립의 중요한 동시기에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지방화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화라는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정치와 행정과정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와 자본은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 국가의 경제를 넘어 세계를 향하여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본만이 국경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지만, 이제 국가의 국경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졌다.

III. 흔들리는 대학

시민사회의 이러한 상황은 대학에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는 그동안 대학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의존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국가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치적인 성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화시대의 도입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대외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대학은 국가와 시장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정신을 계몽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면서 국가와 시장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이중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자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사회의 전통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고 대학 스스로 시장사회의 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마다 특수한 성격의 개성을 발휘하여 가는 편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는 대학은 비정상적인 선의의 경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대학이 국가와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자율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권력과 자본의 시너로 전락하게 된다.

(5면에 계속)

1997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학 | 계열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 비고 |
|------|------|------|-------|-----|----|
| | | | 모집 정원 | 취업자 | |
| 인문 | 인문 | 국어 | 40 | 2 | ※ |
| | | 영어 | 40 | 2 | ※ |
| | | 수학 | 40 | 2 | ※ |
| | | 물리 | 40 | 2 | ※ |
| | | 화학 | 40 | 2 | ※ |
| | | 생물 | 40 | 2 | ※ |
| | | 사상 | 40 | 2 | ※ |
| | | 사회 | 40 | 2 | ※ |
| | | 체육 | 40 | 2 | ※ |
| | | 음악 | 40 | 2 | ※ |
| 사회과학 | 사회과학 | 경제 | 40 | 2 | ※ |
| | | 행정 | 40 | 2 | ※ |
| | | 법학 | 40 | 2 | ※ |
| | | 교육 | 40 | 2 | ※ |
| | | 역사 | 40 | 2 | ※ |
| | | 언어 | 40 | 2 | ※ |
| | | 문화 | 40 | 2 | ※ |
| | | 예술 | 40 | 2 | ※ |
| | | 스포츠 | 40 | 2 | ※ |
| | | 환경 | 40 | 2 | ※ |
| 경제 | 경제 | 경영 | 40 | 2 | ※ |
| | | 회계 | 40 | 2 | ※ |
| | | 통계 | 40 | 2 | ※ |
| | | 보험 | 40 | 2 | ※ |
| | | 금융 | 40 | 2 | ※ |
| | | 세무 | 40 | 2 | ※ |
| | | 법률 | 40 | 2 | ※ |
| | | 언어 | 40 | 2 | ※ |
| | | 문화 | 40 | 2 | ※ |
| | | 예술 | 40 | 2 | ※ |
| 사범 | 사범 | 초등 | 40 | 2 | ※ |
| | | 중등 | 40 | 2 | ※ |
| | | 특수 | 40 | 2 | ※ |
| | | 영어 | 40 | 2 | ※ |
| | | 수학 | 40 | 2 | ※ |
| | | 과학 | 40 | 2 | ※ |
| | | 체육 | 40 | 2 | ※ |
| | | 음악 | 40 | 2 | ※ |
| | | 미술 | 40 | 2 | ※ |
| | | 디자인 | 40 | 2 | ※ |

| 대학 | 계열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 비고 |
|------|------|------------|-------|-----|----|
| | | | 모집 정원 | 취업자 | |
| 자연과학 | 자연과학 | 수학 | 50 | 2 | ※ |
| | | 물리 | 50 | 2 | ※ |
| | | 화학 | 50 | 2 | ※ |
| | | 생물 | 90 | 3 | ※ |
| | | 지구 | 100 | 6 | ※ |
| | | 컴퓨터 | 50 | 4 | ※ |
| | | 환경 | 60 | 2 | ※ |
| | | 기계 | 50 | 4 | ※ |
| | | 건축 | 50 | 4 | ※ |
| | | 토목 | 50 | 2 | ※ |
| 예체능 | 예체능 | 음악 | 650 | 34 | 11 |
| | | 용어 | 40 | 50 | 2 |
| | | (피아노) | (14) | | |
| | | (장구) | (14) | | |
| | | (관악) | (17) | | |
| | | (관현악-바이올린) | (16) | | |
| | | (관현악-비올라) | (22) | | |
| | | (관현악-첼로) | (2) | | |
| | | (관현악-트럼펫) | (1) | | |
| | | (관현악-트롬본) | (1) | | |
| 대계 | 대계 | 미술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 | | 환경 | 50 | 2 | ※ |
| | | 기계 | 50 | 2 | ※ |
| | | 토목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 | | 환경 | 50 | 2 | ※ |
| | | 기계 | 50 | 2 | ※ |
| | | 토목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 대학 | 계열 | 모집단위 | 모집인원 | | 비고 |
|------|------|------------|-------|-----|----|
| | | | 모집 정원 | 취업자 | |
| 자연과학 | 자연과학 | 수학 | 50 | 2 | ※ |
| | | 물리 | 50 | 2 | ※ |
| | | 화학 | 50 | 2 | ※ |
| | | 생물 | 90 | 3 | ※ |
| | | 지구 | 100 | 6 | ※ |
| | | 컴퓨터 | 50 | 4 | ※ |
| | | 환경 | 60 | 2 | ※ |
| | | 기계 | 50 | 4 | ※ |
| | | 건축 | 50 | 4 | ※ |
| | | 토목 | 50 | 2 | ※ |
| 예체능 | 예체능 | 음악 | 690 | 20 | 13 |
| | | 용어 | 40 | 50 | 2 |
| | | (피아노) | (14) | | |
| | | (장구) | (14) | | |
| | | (관악) | (17) | | |
| | | (관현악-바이올린) | (16) | | |
| | | (관현악-비올라) | (22) | | |
| | | (관현악-첼로) | (2) | | |
| | | (관현악-트럼펫) | (1) | | |
| | | (관현악-트롬본) | (1) | | |
| 대계 | 대계 | 미술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 | | 환경 | 50 | 2 | ※ |
| | | 기계 | 50 | 2 | ※ |
| | | 토목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 | | 환경 | 50 | 2 | ※ |
| | | 기계 | 50 | 2 | ※ |
| | | 토목 | 50 | 2 | ※ |
| | | 건축 | 50 | 2 | ※ |

지령 500호 특집

1965년 5월 15일 창간

◇대학생 통일·정치·의식 조사

현정권 성적, 학사경고 수준에 그쳐 각 분야 정책 허점투성으로 보고있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연)에서는 대학생들의 한총련에 대한 인식도와 통일 정치 경계를 비롯한 우리대학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3천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4개분야 39개의 항목에 전국 32개대학의 2천8백53명이 응답한 결과를 상세됨을 밝힌다. (여은이 범필)

3%가 정부의 통일논의의 목적상향과 과정진입이 불력을 불러일으켰다고 응답했다.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학생들만을 지나치게 돌이부린 왜곡, 왜곡보도 일대이었다고 비판했다. 한총련의 비미평화정책, 주

통일 걸림돌 강대국과 이념차 49%

연세대에서 벌어진 경찰과 한총련의 큰 충돌은 해외마다 진행해오던 통일행사를 불허한 정부와 이에 대응한 한총련의 행사강행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면서까지 통일행사를 강행했던 한총련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한총련의 주장은 정당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상에서는 이렇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88%에 이르는 학생들이 통일이 이루어지려 한다고 밝혔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흡수통일(41%)과 1국가 2정체 2체제, 즉 연방제 등의 통일(31%)을 꼽았다. 학생들은 통일의 가장 걸림돌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김경권의 역사바르세우기를 비롯한 과거청산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가 큰 족쇄사범으로 오래지 않아 풀려날 것이냐는 항목에 52%의 학생들이 응답해 김경권의 역사바르세우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권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대선자금에 대한 질문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의 95%이상 이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초기 대외후보는 누구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회창, 박찬중 순으로 선택했다. 김대중, 김중립 야당총재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들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게 지지하지 않더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어떤 단일후보로 김대중 중



(많은 학생들이 전두환의 사형선고에 대해서는 알맞은 판결이고 노태우의 22년 6월에 선고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가 곧 특별사면으로 오래지 않아 풀려날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해 김대중정권의 '역사바로 세우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일어난 한총련 통일대회와 관련 정부와 경찰의 진압태도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경찰,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과잉진압이 폭력 불러 85%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일어난 한총련 통일대회 관련 정부와 경찰의 진압태도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경찰,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7년 대선시 아편단일 후보로 김

대중제가 출마해 여론후보들과 겨뤘을때 이회창세력이 김대중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전대기연이 주최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세대에서 벌어진 학생들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된 '대학생들이 한총련의 화려한 일련도의 투쟁방식에 등을 돌렸다는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응답자의 73.

만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회담서 이회창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70.8%)라고 밝히고 있어 '한총련의 목소리가 북쪽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푸른진 배정당할 것'이라는 제도안론의 보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일분야 가장 혹독하게 평가 '역사 바로 세우기' 실패로 봐

로 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29%), 남북체제간 이념차(20%)를 들었다. 특이한 관계개선이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통일에 불확정 기여(13%), 통일에 조응은 기여(45%),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25.8%),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4%)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북한 진상할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경했다(49%), 적당했다(29%), 미약하게 대처했다(15%)라고 답했다.

김대통령 대선자금 사용가능 95%

김영삼정부의 각종 정책중 통일을 가장 혹독하게 평가(50.3%) D 이하 학점 부여)한 학생들은 김대통령 4년의 각종정책들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교육정책(73%가 C이하)과 서민경제(응답자의 90%가 D이하)에 대해서는 학사경고 수준을 내렸다. 김영삼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지지정당이 없다고(56%) 밝혔다. 또한 전두환의 사형선고에 대해서는 알맞은 판결이다(72%), 노태우의 22년 6월에 선고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45%), 알맞은 편이다(21%)의 입장을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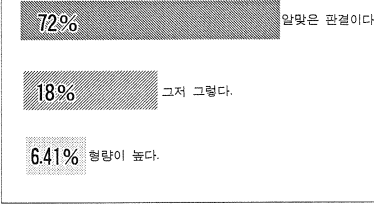
제가 출마했을 시 21% 학생들만이 김중립의 당선을 원하고 야당인 김대중이 출마해도 여권의 이회창 후보에게는 패할 것이라고 24% 학생들이 응답을 했다.

경제모순, 재벌구조-예측 경제 때문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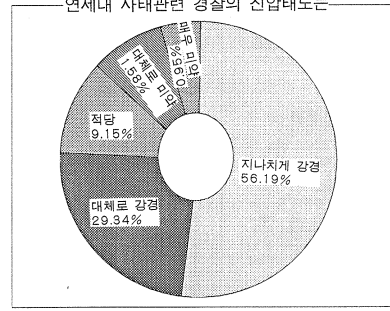
물가인상, 주식폭락, 수출저조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등 최근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로 기인(46%)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 내린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을 강대국에 대한 예측경제(33%)와 재벌구조(30%)라고 진단했다. 학생들은 또 최근 OECD가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적잖음

전두환 사형 선고에 대하여



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연세대 통일대회 이후에도 한총련의 위상은 약화될 것이다(39%), 큰 변화가 없을 것(21.4%), 한총련이 더 강화될 것(20.8%)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총련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라는 질문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39%), 다른 학생대표 조직 발생(22.4%), 비주류 세력의 한총련 장악(16%), 비공통 세력이 학생회 장악(16%)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학생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한총련의 주장은 정당하나 그 발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것(30%)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안전 개정부평과 관련해서는 찬성(64%), 그저 그렇다(28%), 반대한다(5%)고 응답했고 교사,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97년 연세대교회를 앞둔 출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걸쳐 압을 한 연구회가 가톨릭 해이다. 특히 하느님은 좀 모르고 지옥은 불가사미들의 생활은 불행한 상태이다. 게다가 북한정권은 시진은 사회를 반공, 안보미대물고기 물물이며 방위비 비역, 안기부 수사권 부활 등의 반민주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안인의 현실적 진단은 사회정권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김경삼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성과 독후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학단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전승수, 수필가:박성진, 편집장) 주최로 지난 10월27일 홍사단 아카데미 3층에서는 대학신문기자들 비롯한 사회인론 단체들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는 한총련 연세대 통일투쟁이후 자행되고 있는 대학신문단합을 총괄하고, 이를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제도안론의 해곡목회의 원인과 대안, 대학신문단합의 원인과 대안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학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노신은 말했습디다. 길이란 무엇이던가?
없던 것을 뚫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길이 아니던가?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페기와 고니의 젊음, 당신이 가는 길.
월간 『사회평론』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월간 『사회평론』은
우리 시대 젊은 지성의 동반자입니다.

- 현리안 rx1214
- 하이델 monthgil ● 니우누리 ychh

박성진 1957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1981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1981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이회창 1943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1981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김대중 1927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1981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노태우 1937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1981년 1월 10일, 강원도 원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 졸업.

(주)사회평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11층 1102호
02-552-1102
322-5484



백마학술문학상 당선작



시 당선작

가을꽃

김경완 (이부회계·4)

여름의 끝까지 갔다가
나는 한 무리 꽃을 가지고 돌아왔다.
베짜기는 햇살 속으로 뛰어 울랐고
다음은 하나 둘 돌아오지 않았다.
일이 푸른 손으로 해를 받던 누이가
화단에 앉아 나의 꽃을 받고
수북한 얼굴을 들어 웃었지만
기다린 부피만큼은 내색하지 않았다.

달이 차거나 기우는 동안
창이나 벽처럼 밤을 세우던 꽃은
그 밤 아름다운 침묵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꽃이 진다.
기억하기 쉬운 만큼 짧은 시간은
서리처럼 내리고는 사라져 갔다.

가을의 끝까지 따라가
그리움 하나 가져다 놓는다.
해마다 떠나는 것에 대한 미련이
또 가벼운 눈 속에서 허물어져 간다.

당선소감



1) 어제는 받침을 보았다. 그것은 밤이면 빛날 수도 있는 단지 찬백 하지만은 않은 달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풀잎없이 우울하기만 했던 습작 역시 그러했다.

2) 친구집에서 자고 난 다음날이다.

알을 깨고 깨던 습작시절 문학적 아픔 뒤 새로운 기쁨

수없이 끝나는 아침 늦게 먼 기역처럼 찾아오는 듯박의 연락이 하루종일 속을 거북하게 했다.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글이란 요소가 알 속에서 혼자 유르려해 왔다 깨어나면 또 새로운 알을 깨어 내 실체를 보고 싶어하는 괴로운, 외로운이나 그리움 같았다. 간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연가든 하나만이 기쁨의 유일한 중심이었던 것 같다. 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토록 모호하게 하지만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평

소박하게 담백한 시란 감동의 표현이다. 감동이란 느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흥분된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시는 대체로 그렇듯 그렇다. 강한 메시지를 담고자 애쓴다. 물론 그런 형태가 내세우는 경향의 하나이지 가지 않지. 그곳이 지나치면 무리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금년도 백마학술문학상 시 부문에 출품된 1백20여편의 작품들이 쟁쟁히 출어 시적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작품으로서도 어느 한쪽 경향만 시로 있지 않았다. 김경완의 '가을꽃' 등이 그 좋은 예가 되었는데, 그 지명성 때문에 하나의 시로써 재배로 언급하지 못했다. 그에 비해 하나의 시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흥분된 감동이나 심적 상태가 좋은 시의 모태가 되는 시 정신임을 김경완의 '가을꽃'은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보는 마음이 좋은 시 미세한 경험 형상화 성공

이미지를 구현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시적 행위는 재래의 서정시가 차차 개념적인 비가시(非可視)로 흘러갈수록 더욱더 대안 민족적으로 여겨진다. '가을꽃'은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진부하지 않은 적절한 표현에다 사물을 보는 시각 또한 평범이 재래의 낮은 강직적 서정시의 세계에서 한걸음 앞서 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에스프레소의 선명함과 그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김 경 완 >의 '가을꽃'은 '가을꽃'의 선명함과 그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김 경 완 >의 '가을꽃'은 '가을꽃'의 선명함과 그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 규 태 (시인·국어국문·교수)

심사평

◇논문 당선작을 뽑지 않은 이유

형식 무시·주관적 내용

학살들은 흔히 대학 지체에서 발견하는 논문집과 국내 또는 국제 저널에 내는 논문집의 수준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논문이란 객관적으 검증용 발자이다. 글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 예를 들면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진행된 이론적 배경(Literature Review), 선택된 연구방법(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설명 등이 있어야 하며, 결론을 반드시 본문에서 나온 연구 사실에 바탕을 두어 내려져야 한다. 이번 에 제출된 논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학문적인 객관성을 내세우기에는 너무 주관적이었다.

첫번째 논문인 "생진자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는 내용의 요약(Abstract), 이론적인 배경, 연구방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쓰여졌다. 그러나, 서론은 제시되어야 할 연구의 대상(research boundary)이 분명치 않다. 저자는 "기초의 인문학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에 대해 반성과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가능한 방향성을 찾아보려는 데 있다"고 하였는데, 중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논문의 성격상 범위가 넓어 부적합하다. 또한 이 논점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가치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본론의 형식은 저자의 생각을 내릴만 독창적인 부분이 눈에 띄어, 논문

이란 개인의 생각을 쓰는 사실과는 다르며, 어떠한 증거나,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의 형식은 본론까지의 전개된 이론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구에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여야 한다. 부분까지의 논리적인 이론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본론까지의 말을 정리하여 되풀이 하

되어 있지 않고, 논리성이 기존 논문에서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두번째 논문인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정보와 촉진 방안"은 요약(Abstract) 및 이론적인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이론 논점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연구의 목표와 삼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내용전개에 필요한 자료만 본위에 적어져야 한다. 참조를 쓰는 방식에 저서와 저널의 구분 없이 없고, 저널의 Volume과 Number가 없어서 독자가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용의 정도도 발췌 인용은 큰 다음표로, 아닌 것은 작은 다음표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점수를 지적하는 이유는 논문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역시 평가 결과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미지막으로,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Professor N.L Lawrie의 말을 인용하려 한다. 그는 논문이란 '진짜 그 부분을 전공하지 않는 자라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쓰려면, 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과 이를 적절히 있게 구성해야 한다.

이번 논문 심사에 있어서 당선작이 나오지 못한 원에 대해 본인도 무척 아쉽지만, 진주대신문에서 인정하는 논문은 질(quality)이 국제 저널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황선문 (산업공학·교수)

누구나 이해하도록 객관성 갖춰야 에스프레소의 선명함·순수함 돋보여

였으므로 결론이라고 볼 수 없고 Summary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참조문헌(reference)이다. 논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논문은 전혀 참조 문헌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주장을 펼친 사설에 가깝다. 논리성에서 이러한 부분만을 사설로써 평가한다면, 상당한 점수를 줄 수도 있으나, 논문의이에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평가의 결과는 이 논문은 기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인용 참조 문헌이 구성

하였으나,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보고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과 폴리우레탄은 오늘날 무한 경쟁 체제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외부성이 점진적이거나 내부적이다. 논문 제목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아야 하고, 제시된 방안이 정보보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떻게 정보보통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의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심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세이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KCC

(주)금강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지령 500호 특집

호남의 금석

<7> 호남벌에 사라진 벽골제비

호남이 광장지대라는 말은 김제평야를 가보면 실감할 수 있다. 아무런 흠은 생김도 없는 사마이라도 한바탕 황금들판으로 이루어진 김제평야를 바라보면 어느새 낯익은 아름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김제평야로 대표되는 전라도이다. 그러나 예부터 전라도는 인심이 후하다고 하지 않았다.

오늘날 김제시는 옛날의 김제·금구·만경의 3읍을 합친 것으로 전북평야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誌)에 따르면 김제군은 본래 벽제의 벽골현으로 김여왕이 개칭한 것인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金堤郡 本百濟舊博羅 高麗王改爲 金堤之邑 曰 金堤 郡 本百濟舊博羅 高麗王改爲 金堤之邑 曰 金堤 郡). 또 금구는 본래 벽제 구지(舊地)였었던 것을 벽제왕이 금구로 바꾼 것이다(金堤郡 本百濟舊博羅 高麗王改爲 金堤之邑 曰 金堤 郡).

있는 벽골제비는 조선조 태종(太宗) 16년인 1415년에 건립된 것으로 1959년에 일몰해서 시제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우선 벽골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김제 벽골제지명(金堤 壁骨堤 之 名) 김제군 남쪽 15리쯤에 큰 언덕이 있다. 이름하여 벽골제라 한다. 옛 사람이 김제의 옛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삼고 군(郡) 또한 이 방죽을 쌓았으므로 인하여 이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벽골제의 길이는 6만8천43척이다. 내부 면적은 497가 77406보(步)이다. 다른 곳의 도랑을 준설, 논(水田)에 관개(灌溉)하여 9840결(結) 95백

곡창 적시던 풍요로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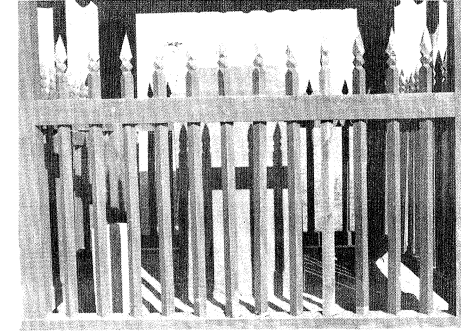
김제 옛이름 '벽골현'에 저수지...황금들판 이뤄

1965년 5월 15일 창간

에 이르니, 식자량이 이를 원으로 여겼다. 하늘이 조선을 왕업을 열어 성군(聖君)이 탄생하여 마을을 다스려 풍요로움에 이르렀다. 이에 여러 대신들에게 사방을 순시하면서 지방을 쌓아 관개를 흥하고 명하였다. 울미년 봄, 판상주(判尚書) 이방(李穡)을 도첨사(都添使)로 삼았다. 이방(李穡)이 처음 벽골제에 이르러 이를 수리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일이 많아서 이루지 못하였다. 도관찰주사(都觀察使) 함양 박승(咸陽 朴勝)이 김제 관정(金堤 觀井), 자관 박희경(佐官 朴希敬)과 함께 벽골제

지방 일대에 다섯줄로 버드나무를 심어서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하였다.

벽골제 아래에 나있는 70척이오 위 너는 40척이오 높이 17척이다. 수문은 평리사(平里)로써 언덕처럼 보인다. 그 장생기(長生基), 중심기(中心基), 경장기(經場基) 수문은 옛날 돌기둥(石柱)을 그대로 보수하였고, 여류기(女流渠), 수동기(水通渠) 수문은 유석(流石)으로써 기초를 다져 파수(破水)를 이루고, 또 양쪽 돌기둥 중심 오목한 곳에 옆으로 파관(破管)을 설치하고 안팎은 쇠로써 연결 파관을 만들어 관을 들어 물길을 여는 풍토로 갖았다. 또한 수문의 너비는 모두 13척이요, 돌기둥의 높이는 15척이요, 방수로 5척이 넘고 그 아래에는 바위를 깔고 쇠를 부어 내면의 돌기둥을 하나, 수여기(水餘渠)와 유통기(流通渠) 두 도랑의 수문은 모두 물결에 격동하지 않고, 만일 범람하면 저절로 흘러내려 지방을 막을 게 없고, 모든 도랑의 수문 앞에는 바위를 깔아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다 나리나무 관자를 깔고 다리를 만들어 왕래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그 대략이며, 때는 영락(永樂) 13년(1415)이다.



마치 신라 열토 내의 것인 것처럼 되었는가? 신라대에 벽골지나 벽골제와 같은 명칭을 가진 제축(堤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라본토에 나오는 벽골지는 벽제의 벽골제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사그리기의 기사는 원래 벽골제에 관한 기사를 가사(加事)로써 신라기사가 아니라 신라본토에서 기록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김제 평야의 '삼국사기' 분기 속에서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과거 벽제 열토내에 일어난 사실들을 원래 벽제의 기년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다시 신라의 기년으로 고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신라에서 일어난 일인양 취급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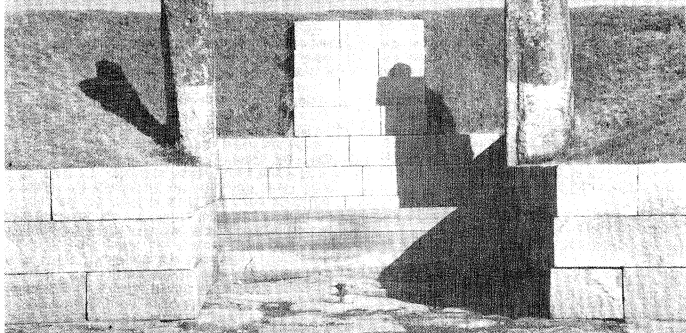
조선 태종 '벽골제비' 건립해 고대 최대 제방축조 내용 담아

(卜)을 적사준다고 옛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첫째는 수여기(水餘渠)라 한 물줄기를 건립한 것인데(而頭) 남쪽까지 흐른다. 둘째는 경장기(經場基)라 한 물줄기를 건립한 것인데(而頭) 남쪽까지 흐른다. 셋째는 중심기(中心基)라 한 물줄기를 건립하여 오목 부쪽과 부른(扶) 쪽까지 흐른다. 넷째는 경장기(經場基)이다. 다섯째는 유통기(流通渠)라 한 물줄기를 건립하여 안의(仁義) 서쪽으로 흐른다. 다섯 도랑의 관개(灌溉)로 토지가 비옥하게 되었다.

이 벽골제는 신라 벽제로부터 벽성(壁城) 수리(水府)의 해방을 수리, 고대 고리 현상과 옛 벽제로 수리, 보수하였다고, 임종 21년(894)에 또 다시 수리, 복원하였으나, 마침내 다시 버려지

에 이르러 공사의 예로써 과해서 모두 그 전후 분말을 아껴서 마칠내 임공의 허락을 받았다. 이에 각 관에서 민행(民行) 10명, 10명, 10명씩을 파견하여 정찰하여 유수(有數)를 정하여(而後) 김제(金堤)에 관공(官工)을 파견하여(而後) 그해 9월 건립에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경중에 완공하였다.

벽골제의 북쪽으로는 대곡포(大陂浦)가 있는데 조수(潮水)를 거세고, 남쪽에는 양지(楊枝橋)가 있는데 물이 제방을 쌓아가 예로부터 어려웠던 곳이다. 이제 먼저 조수(潮水)가 거센 대곡포(大陂浦)에 제방을 쌓아 이 바다 물길을 줄이고, 다음은 물이 깊은 양지(楊枝橋)를 다스려 물이 넘지 않게 하여 제방을 세우고 흙을 바꾸고 또한 무너진 제방에는 흙을 쌓아 평평하게 하고



대학원학신은 연구구독 특별인

“젊은이는 당당한 삶의 개척자”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건강할 대학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인 모두의 열람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인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 방향을 찾는 '대학인의 열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간만 다잡아도 마음 속에 그려진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근성있게 노력하는 젊음의 열정과 대학문화신문은 함께하겠습니다.



원고도 모집합니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금과 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특약자를 모집합니다. 대학생활 중 어디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화(逸話),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원고로 보내주시면 원고료도 보내드립니다. 예심은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기사 소제(小題)이벤트를 제공해 줍니다. 대학문화신문의 고지(告知)나 소식을 담당하는 기자 또는 기자에게에 대한 기획(기획)을 자유로움 원칙으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벤트의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전라도 취업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락하시면 최우선으로 편집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문화신문사 The University Culture Press 서울 중로구 은니동 88-78기타(터) 10F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진로와 취업, 그리고 받고 기망한 대학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사제출: 02-762-1366/전화나 나무누리.하이텔 ID: UCPress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 02-741-1661~2, FAX: 762-1749

백제 축조·고려 파괴·조선 복원 삼국사기에 '신라축조'라고 왜곡

계산되고 있다. 이러한 특목구독사는 정밀도가 매우 높은 수문측정기(水門測定器)를 장비한 것이므로,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당시 특목구독이 고도로 발달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벽골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벽골제 건설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벽골제의 축조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토에 출몰(出沒)한(訖) 21년 조종에 '처음에도 벽골지를 개척한 언덕 길이가 1800보(보)이다(新羅本國記 延壽1800보)'는 기사가 처음으로 나온다. 출몰(出沒)이란 제 16대왕으로 출몰(出沒)한 21년은 백제의 제 11대 비류왕 27년(330년)에 해당한다. 이 때는 신라나 백제의 초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벽골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기록은 600년 뒤의 일이다. 그렇다면 왜 '벽골지'는 '벽골제'는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신청서

| | |
|--------------|-----------------------------|
| 연간구독기간 | 1996년()월부터 1997년()월까지 |
| 연간구독 신청하시는 분 | 주소 _____ ()대학 ()대학 ()학과 |
| 연락처 | 연락처 _____ |
| 신용결제 | 주소 _____ |
| 보통 결제 | 연락처 _____ |
| 구독료 | ()명월당 |
| 납부형태 |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

위와같이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96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_____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귀중

*연간구독을 신청하실 분은 위 내용을 기재하여 02-762-1749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자에게는 부록으로 우편발행 서비스를 드립니다.

*연간구독료는 아래 내용 온라인 구매로 입금하신 후 독자관리부 (전화 741-1661)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917-01-0250-983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계좌입금 129-20-131197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 문의처: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서울서 중로구 은니동 88-78기타(터) 10층 전화 741-1661/팩스 762-1749

1965년 5월 15일 창간

지령 500호 특집

무란잡기

▲전주대신문이 지령 500호를 맞이했다. 정확한 회계, 공정한 보도, 착실한 제작을 사시로 1965년 5월 15일 제1호신문을 창간 30여년 만에 일었다. 그동안 교수·직원·학생들을 만나하며 기자들이 꿰뚫어 본 결과와 500호란 절충한 양적 성장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다. 30여년 동안 전주대신문은 수많은 글자들의 비판과 격려를 받으면서 원만한 역경을 겪어오며 한 전주대학교의 살아있는 참본인이다. 명색들이 거의 없던 예전 전주대신문은 대학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독자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고싶어도 없어서 못 있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500호를 맞이하기까지 준비와 발행시기를 앞당겼던 것도 독자들과의 비판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한 참 후에 500호가 나왔을 것이다. 그만큼 전주대신문은 그동안 학교내의 대외사를 알리고 분석해 나간 역할을 담당해왔다.

500호를 맞이하여

▲그러나 30여년동안 수많은 기자들이 대학신문을 엮어 오면서 힘든 작업을 꾸준히 해오면서 정진해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500호라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신문으로서 수렴받고 취재하며 기사 쓰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주대신문에 나왔던 기사 때문에 취재원이 폭언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등 인신공격의 위험을 안고 다녔던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집국장을 소환하여 끌고 가기도 했고 기사 때문에 정부 기관에 불리한 경우도 있던 적도 있다. 특히 학교 당국에 의해 학생들의 부당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신문에 보도하고 하여 학교를 침범 당하거나 신문을 불태우기도 했던 적이 두번이나 있다. 그만큼 전주대신문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이 나오지 못하게 될 때마다 기자들과 독자들의 피나는 싸움이 오고갈 것 같은 500호를 맞게 되었다.

지금 500호 신문이 나오기까지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독자들과의 기쁨을 같이하는 이유도 다 그렇을 사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신문을 위해 애를 쓴 선배기자들과 거의 10년째 기자들과 동지들처럼 같이 일하면서 교수님에게도 역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주간 편으로 꾸준한 나오고 있는 전주대신문은 전주대학교가 있는 그날까지 구성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비록 500호이지만 정확한 회계와 공정한 보도, 착실한 제작으로 1000호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는 신문을 창간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500호가 나오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독자들과 취재사단도 기자들은 더욱더 많은 취재를 바탕으로 신문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다.

(김두원 기자)

실�크드 탐사기 시사회

비디오 촬영... '돈황의 폐허와 유적화' 내용

전주사학연구회(소장:김종환)의 주최로 지난 여름 1개월간 실�크드를 탐사한 박정호(국어교육) 교수의 '실�크드 탐사기' 시사회가 지난 31일 교수연구회 8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사의 현장을 본 뒤 수고로움에 감사하며 박정호 교수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현지에서 여행하며 직접 찍은 28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2시간으로 편집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은 '돈황의 폐허와 유적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20년 전 문화유산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실�크드 탐사기 시사회는 49년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다.

질 알리지 않은 귀중한 증거와 소인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학과, 홍보부 제작

보통학과 학생회(회장:허문수)에서는 '96학년도 보통회와 취입 및 입학홍보단을 지난 29일에 제작하였다.

이번 홍보단은 취입생들이 취입을 할때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은 입학 소개 및 교과과정, 학술활동, 교수 현황, 96년도 취입생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입생 대상자 소개로 49년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있다.

학생회 선거 '이상 기류'... 단독후보 급증

중선위

단체선거... 과반수 투표율·찬성에 당선가능 예·체능대 미등록... 오는 5일 재등록 받기로해

'97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 후보 등록이 예·체능대를 제외한 총학생회 선거 단계에서 지난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등록자를 살펴보면 ▲총학생회 후보에 문태성(사회복지·4)·이기복(지역경제·4)군이 기호 1번에, 그리고 이선열(회계·3)·정석용(이부법학·3)군이 기호 2번에 각각 정·부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인문대 장찬구(국어·3)·임성택(문학영문·3) ▲경남대 정영환(회계·3) ▲이대원(지역경제·3) ▲사범대 최우영(일어교육·2)·김은실(수학교육·2) ▲사과대 주우영(행정·2)·홍순배(사회복지·2) ▲교대 류영석(수학·3)·강승준(산업공학·2) ▲이부대 김강수(이부산업공학·2) ▲오양훈(이부 기계공학·2) 이 정·부보 등록하였다. 각 단대는 단독후보만으로 학생회와 총동연선관위를 통일하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인근에 당선되어서도 총동연 후보를 받음 예정인 이상희의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총동연선관위 구성 최종확정 동아리 대표자들의 결정... 중선위와 마찰

96학년도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4일 11월 4일 이틀간 선거투표일 4일 선거인명부 열람, 5일부터 11일까지 선거준비기간, 14일 투표, 15일 당선공고일이다.

정보통신 한마당 참가

컴퓨터 동아리 J.U.C.C는 전라북도 및 전북에서 신청하고 전북지역 중보와 추진 협의회가 주축하는 '96정보통신 전라북도'라는 이름으로 총동연 선관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주 시내를 돌고다니고 있다. 총 21개의 동아리를 참가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역 정보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주 시내를 돌고다니고 있다. 총 21개의 동아리를 참가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역 정보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정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주 시내를 돌고다니고 있다. 총 21개의 동아리를 참가시키고 있다.



(지난 31일 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 선거 투표장을 마감했다. 예·체능대를 제외하고 총학생회 2후보, 각 단대가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우리대학, 대학입학 정원조정

도시공학과 신설... 교육부 최종 허가

우리대학에서는 '97년 대학원원 총원 총과를 교육부에 신청해 지난 10월 24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 총과·중원보 인원을 살펴보면 도시공학과(50)를 신설하고 과거 전기전자 학부에서 공학부였던 것을 전기전자 공학부와 컴퓨터 공학부로 변경한다.

전기전자 공학부는 전기전자공학 50(50)전공과 이 학부에 정보통신 공학 전공을 새로 신설 신청장을

들려보는 세상

영어·경제시대의 무기 기법들이 영어·경제 특이점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모기업은 특이점의 점수대를 정해놓고 그 점수대로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월·여수당을 지급하고 본봉에 30~100만원까지 더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하는 등, 또한 해외근무를 다녀오는 특이점 재능개발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일 "영어·경제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이런 영어실력도 없었던 회사에 발 디딜곳조차 없으니, 영어가 고득점 되어가는 세상에서 학생 여러분은 사범대처럼 한 번 받아보려면 영어부 열심 하세요!"

문태성(사회복지) 대학1 사범에서 유망한 지방재정특종이 있다는 이유로 정제석으로 유망하다는 이유로 남양성도 여학생이 계약종류라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천8백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 대학원 7%, 여자 대학원 3%가 중점어이나 중점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기쁜 것은 마태이 받았으면 1년동안 계약종류 같다고 다른 쪽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 "영어·경제 시대대를 뒤를 깨끗한 종지만 이렇듯 결코 무 배워서 절단하지 않더라도는 승승 걸음하듯 보 색색을 걸어 뒤를 깨끗한 만큼 시련은 신중하게..."

눈이 짜져 슬픈 학생의 얘기

전통의 모태와 신문의사 그 대학 96학년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한 이의 조사를 한 결과 1백명 가운데 84명이 대학 재학중 한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전남 법원은 주로 학사이나 강의의 법에 있어보거나 전년도에 대해 보는 경우도 있으며 예전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백명 가운데 84명이 대학 재학중 한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전주병원, 내과 무료진료·상담

총 13명 학생 진료... 오는 7일 치과

전주병원의 내과(간담 및 내과) 21일에 내과 무료 진료 및 상담이 지난 31일에 의무실에서는, 신부인과 (전문의 내과)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내과 전문의 김경현 박사 등 총 13명의 학생을 진료 및 상담을 하였다.

또한 11월 진료과목은 7일에는 치과(전문의 조상기), 14일에는 이

직 원 모 집

1. 모집직종 및 응시자격

| 직종 | 인원 | 직종 | 응시 자격 |
|-----|------|-----|-----------------------------------------------------------------------------------------------------------------------------------|
| 일반직 | 남 0명 | 회계학 | · 1966.11.1 이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인우 절차시유가 없는 자 · 4년에 대학졸업자 및 97년 2월 졸업예정자 · 전(순) 학년성적 평균 B학점이상 · 병역별 또는 면제자 · 기독교신자 |
2.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1통(전화번호 기재)
나.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페이지)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평균평점기재, 백분율 환산)
라. 세제증명 또는 특수추천서 1통
3. 제출기간: 1996. 11. 5. ~ 1996. 11. 6.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및 영어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개별통보)
5. 제출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총무과 인사과
6. 기타사항

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전화 (0652) 220-2143, 2826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전 주 대 학 교

교내 출임 차량 통제 안내

1. 목적

가. 외부 차량 출임 통제
[운전연습, 교내통과 차량(효자동-삼천동), 성우행, 비업무용 차량]
나. 차량이용도로 결도 행위 방지
다. 외부차량주차로 주차장 부족(교부안정 및 주차지정 확립)
2. 통제 차량: 교직원, 학생, 대학원생, 각원생, 영고생, 영학군단, 교내업소차량, 기타.
3. 차량 통제 홍보기간: 1996년 10월 21일(월)~10월 31일(목)
4. 차량스티커 부착기간: 1996년 11월 1일(금)~11월 9일(토)
5. 출임 차량 통제: 1996년 11월 11일(월)부터 출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통제.
6. 차량스티커 제작

가. 교직원용 - 기존 스티커에 아랍표시 첨가(백색바탕)
나. 학생, 대학원생 - 교직원 스티커에 색상만 별도(황색바탕)
다. 시간강사, 조교, 교내업소 - 교직원 스티커에 색상만 별도(연초록바탕)
7. 차량스티커 부착요령

가. 교직원차량은 신분증 제시후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직접 부착.
나. 학생 및 대학원생은 본인 차량일 경우 학생증과 차량등록증을 확인후 청원경찰이 직접 부착하고 본인 차량이 아니고 보호자 차량일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을 확인후 스티커 부착.
다. 교내 업소 차량, 시간강사, 조교: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카드나 자동차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학교 교표로와 일치여부 확인후 청원경찰이 직접 부착하여 드립니다.
8. 일반차량 유의사항(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가. 학교 업무용으로 출임하는 차량은 정문에서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후 학교출입카드를 교부받아 차량 정면에 부착하고 출임해야 하며 나아가갈때 정문에 반납후 신분증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 차량은 청경의 지시를 받아 정문일 주차장에 주차후 학교에 출임해야 합니다.
다. 교내 청원경찰이 순찰중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양념법문을 회수하여 정문에서 보관후 조치 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 총장

우리의 감격, 자유처럼 눈부신 역사여

그 옛날 노승종 철로 언덕배기터
 낮은 조용한 침묵이다가
 만경봉이 너머로 해가 지면
 울려퍼져 깨기 시작한 간담대
 그곳에서 '초승'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 후 오월 심오일
 아카시야 향기가 그 통산을 휘덮던 날 밤
 낮은 초승의 연구 불빛 아래
 '간담문'의 원형을 지체하여
 자발로 모여 편을 짜야
 첫 교섭을 알았던
 '영생대학'의
 제 1호

장교철
 (10기·순창고 교사)

승승장구 댈어 갈 우리 터가 필요해
 제2의 개교를 선언하며
 광활한 묘지들 37가 5만평 처너지
 그곳에서 구국의 희생을 보고
 서해안 시대의 주역들 시작으로
 21세기의 새날을 만들어 갈 눈빛을 모았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
 사람도 새끼새, 정신을 일신 우월신하여
 천장산에
 이념의 꽃바를 선언하고
 가장 중심에서 어떤 흔들림 없기를 열망하며
 싸우고 또 싸워 온
 '전주대신문'

지나온 세월, 이곳에다
 끝은 소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고
 억압해 오는 모든 것을 타아내며
 진리가 아닌 것을 배격하는 힘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낮은 곳에서 추위와 싸우는 자 함께 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깨우고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다
 아, 우리는 감격이다
 자유처럼 눈부신 지평

그러나 무리예전
 아직도 감격은 반성임을 여저하라

중단 폭격으로 얼룩 있는
 대학들의 생존 경쟁
 날마다 발표되는 대학별 순위
 발전 계획, 연구 실적, 시설 투자...

'중추대'는 있는가
 삼십 년이 넘은 역사
 오백호 지평을 찾아 오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할 일 없이 발만 축만 자아서 떠나고
 때가 되면 철로 치는 말들같이
 나이만 자 커질 줄리라고 알아서 가자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이웃
 아무진 비전 보이며
 저만을 앞서가는데

우리는 지금 기록이 있는가
 아직도 무중지대나
 우리는 있는 것이냐

그때, 누구를 믿었는가
 우리 '전주대신문'이 나서 일어나
 살리자, 열리자, 만물자, 앞사자
 어느때도 멈출 수 없는 우리
 이제부터 뜨거운 땅을 다시 흘리며
 저절로 생겨나는 역사기 아닌
 열렬히 살아 뛰는 원천의 청사를 위해
 전주대학교
 삼십 년 전통을 새롭게 만물자

무리예전 아직도 기쁨은 반성이다

추하만평

백 무무현(15기·경북대인문사(문사기))



작은애기

시월의 마지막날

잊을 수 없는 가을밤의 멜로디

고등학교때 느끼던 정감을 대낮에 와서선 좀처럼 느끼기 힘들다. 그러나 가끔씩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이 나를 즐겁게 한다.
 은행앞이 학교를 운동 노릇에 채웠던 가을색이 짙어지기도 우리는 임시라는 결정속에서 그냥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가을을 한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로 마음속의 가을과 선생님의 사랑을 길게 느낄 수 있었다.

10월의 마지막날 하면 나는 까만색 교복을 입고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난다. 그날도 다들 날과 다들 많이 아자라 불렀던 야간 자율학습을 열심히 할려고 있었다. 9시 30분 정도 울리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은 9시 50분에 흐르는 노랫소리에 모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진 계절"이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지치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아닌 기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야간 자율학습 종소리는 정적을 깨는 소란한 울림이 아니라 아름다움 노랫소리라고 하는 겨울까지 계속 되었다.
 10월의 마지막날 밤의 감동은 교고시월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2년이 지난 10월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진호(국어국문·1)

여고시절 한껏 감미로웠던 그날

내 여고시절, 그뿐 그했다. 거의 똑같은 수준의 선물가게를 몇군데씩 돌아다니며 마스프 인형과 6개의 에이스 크래커를 포장하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친구의 모습과 짝사랑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 보며 편지리 부듯하고 가슴설레며 왔던 기억.

시월의 마지막날 추고받던 이 선물들은 그 시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우정표현이고 사랑고 배이었다.

그날 선물을 많이 받으신 선생님의 수업시간은 아무런 불만없이 지나가듯 가질 필요가 없었다. 연신 행복함 미소를 머금고있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말야'"로 시작하시던 첫사랑 얘기. 그 얘기는 어느새 지상최고의 러브스토리로 뇌리에 들어와 바쳐간 것이다.

시월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내서는 안된다. 마음과 과감한 야간자습을 행명이치고 나와 조그마한 친구 지휘봉에 어깨를 맞부치고 있어 부족한 과외에 "친구여"만 노래를 가사기만히 부르기도 있었다. 어떻게 그 순간만큼 다음날 아침이면 품속만큼 울림이 아니라 아름다움 노랫소리라고 하는 겨울까지 계속 되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간직할 기억이 있다면 추억으로 2년이 지난 10월에도 사라지지 않을 추억할 수 있는 뚜렷한 행복이 될 수 있을테지...

박혜영(응용통계·3)

다음제목: 나의 전생애... 원고매수: 3매 마감일: 11월 7일(목)

추하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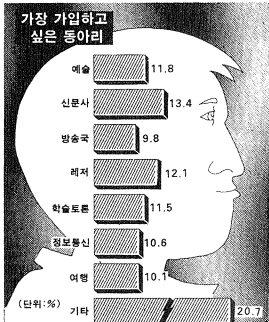
오정용(원광대 편집국장)



신세대 기자 모집

"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

대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야! 행동으로 대학신문사를 꼽았대요.
 하지만 막상 신문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거 잘지 않더군요.
 '논 글 못써.' '사실짜니까 무시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많아요.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낚의 얘기만 듣고 포기하기엔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신세대 96학번 여겨본!
 그게 순 한번 들어키고 신문사도 오세요.
 새디는 대학생형이 기다리고 있디니까요.
 하고 싶은일 한번 해보자구요.
 석마 떠서 겁먹고 포기하는 건 아니죠?



<전국 24개 대학 8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하고 싶은 과외 활동에 신문사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대학신문사에서 발표)>

백려를 이어가는 새내기 모집

제 28기 수습기자

- ◆모집 대상 : 96학번 00명
- ◆모집 부문 : 취재, 사진, 만화(컷)
- ◆모집 및 전형 일시: 11월 12일 오후 5시 까지
- ◆전형 방법 : 면접
- ◆원서 접수 및 장소 : 전주대신문사 편집국 (학생회관 3층 진리관 앞 ☎ 220-2442)

